

“대순사상의 종교학적 이해”에 대한 논평

유 승 중

(대진대학교)

조선조 말엽의 시대 상황은 기존의 가치체제가 붕괴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사회 제도나 전통 종교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구심점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체제 안에서의 개혁이 일어 날 수 있을 것이며, 또는 기존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개혁이 일어 날 수 있다. 이러한 개혁 중에 증산이 제시한 개혁이 기존의 틀을 완전히 고치는 것이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세계관에 대한 개혁을 주장한다. 이러한 개혁에 대한 필자는, “사회적으로는 조선 후기 1801년에 공노비제를 폐지하면서 이모작을 통한 생산량 확보로 서민지주의 등장을 가능케 하여 신분적 연속성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과 삼정의 문란 그로 인한 민란의 발생은 대내외적으로 조선의 혼란상을 가중시켜 동학혁명을 촉발케 하였으며 이를 통해 증산은 관념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동학과 비교하여) 증산이 주장하는 바는 구체적이기 보다는 관념적이지 않았는가 생각 된다. 즉, 신명의 해원이라든가, 천지공사 등은 구체적이라기 보다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3장에서 「전경」의 공사 3장 5절, 예시 17절을 인용 설명하면서, “개혁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과 신명의 원을 푸는 일, 다시말하면 ‘해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해원의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상극이

완전히 해소된 신경건설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며 이는 증산계서 악을 악으로 씻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다는 말씀에서도 그 필연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원을 바탕으로 하여 신명을 조화하는 작업은 상제께서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므로 귀신과 더불어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혁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나타나는 의미는 인간의 주체적인 활동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개혁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5번째 특징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개혁시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하고, 또 “앞서 언급한 개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산이 짜 놓은 천지공사 또는 개혁공사라는 체계적인 도수에 더하여 인간의 기국을 키워 개혁되는 천지 또는 신명계와 조화할 수 있는 동시에 개혁이 이룩되기 위한 인간의 역할을 완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성(聖) 웅(雄)을 겸비하라고 하신 말씀은 인간역시 개혁시대를 당하여 보다 성숙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지적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인간의 능동적인 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점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증산 자신에 의해서 신명계가 해원을 하는 것이나, 모든 인간과 신명들의 한을 해소시켜 상생이라는 평화공존의 상태를 회복시킨다면 인간이 참여해서 완성시킬 여지가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인간의 능동적인 참여는 개혁을 완성시키는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 완성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원한의 발생을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방지하려면 행위의 주체자인 인간 자신이 성숙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인간 자신에 내재한 본연의 성품을 완전하게 실현한다는 의미로 성웅을 겸비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